**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

**<마태복음 6장 13a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기도의 마지막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우선 성숙을 위한 ‘훈련’ 혹은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때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죄악에 빠지게하는 ‘유혹’의 성격을 갖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이 두 번째 의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하는 유혹”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곧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악에서 구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악에 빠지기 쉬운 조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6:4)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딤후3:2-4).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삶의 방식을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듯 뽐내려 하는 것입니다 (요일2:16).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7:21-23). 즉,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함에 쉽게 맞장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뒤에서 살살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다가옵니다 (고후11:14).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합니다 (행13:10). 우리는 태초에 그가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8:44).

때로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살후2:9-10). 그리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듯,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듯 허풍을 떱니다 (마4:8-9). 거기에 미혹되어 어떤 이들은 사탄에게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넘깁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받아 악에 빠지기 쉬운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악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지 몰라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에 빠지기 쉬운 조건 속에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14:38)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무던히도 애쓰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뜻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 마음 속에 있던 성경말씀을 적절히 인용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자 사탄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한 지 악한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는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듯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눅8:12).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1:21).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 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롬6:6).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롬6:23).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말씁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벧전4:3).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롬6:21).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힘입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면서 무거운 짐만 지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악과의 싸움을 평생 지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왕국은 치명타를 입었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탄/마귀는 아직 완전히 결박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격돌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력하고,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온갖 악한 계획으로 그것을 저지하려 애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과의 싸움을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다 마귀 때문이라 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마귀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인생도 잘 풀리려면 능력을 받아 마귀를 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에서 멸하는데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죄로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악한 계획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복종하는데 그분은 집중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귀를 경계해야 하지만, 마귀에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늘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악에 대해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롬12:21).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싸움에 대해 귀한 권면을 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1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참여해야 할 영적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악한 계획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목표는 마귀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이 싸움의 목표는 그 모든 일이 끝마쳐지는 그날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리의 허리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 가운데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조차도 마귀를 쫓아낼 수는 있어도 궤멸시킬 만한 무기는 아닙니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일5:4). 악에 악으로, 힘에 힘으로 맞서는데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 그분 자신의 승리를 위해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머잖아 환란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17:15). 우리가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기 쉬운 조건 속에 살고 있기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과의 싸움을 우리가 평생 지속해나가야 하기에 이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셨다면, 그보다 한참 모자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긍휼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허리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에 힘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로 결심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